

남원시 소통의 장 '찾아가는 시장실'

23개 읍면동 506개 마을 순회
200여건 민원 사항 접수
안전사고 예방 등 9월 추경 반영



최경식 남원시장이 덕과면을 찾아 마을 이장단과 주요 직능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민선 8기 하반기 시장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최경식 시장이 시민 의견수렴과 불편사항 해소 등 소통강화를 위해 이달 초부터 각 읍면동 순회를 시작했던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이 마무리됐다.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했던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에서 최경식 시장은 이통장 및 주요 직능단체장들에게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냈고 총 200여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최 시장은 공모사업 대응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506개 마을 이통장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9월 추경예산에 반영해 연내 해결을 추진하고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행정절차와 계획수립 등을 거쳐 진행 것을 약속했다.

현장에서의 주민들도 뜨겁게 호응했다. 한 시민은 최 시장의 시장 프레젠테이션 설명에 대해 언급하

며 "남원시 시정에 대한 큰 그림부터 소규모 속원사업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는 건의사항추진상황보고회 개최 등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원인에게 수시로 과정과 결과를 안내하는 등 집중 관리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에도 기업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현장 민원 반영을 위한 '남원시장이 간다' 등 진정성 있는 소통행정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도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현장 중심의 소통·공감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농공단지 소기업 물류비 50% 지원

폐수배출 위탁처리비 50%...이달까지 접수

남원시가 지역 농공단지에 입주한 소규모 기업체에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공단지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조업체로 지난 2023년 기준 연매출액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다.

물류비는 2023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최대 2500만원), 폐수배출위탁처리비는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5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23년부터 농공단지 외 개별 기업에도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중

이며 역시 2023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최대 200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비제조업과 세금미납기업, 유사사업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미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의 일정으로 신청을 접수 중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물류비 및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을 통해 관내 제조업체의 물류 정상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애로 해소와 지원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악취 배출사업장 집중 점검

가축분뇨·폐기물 재활용업체 등 50개소·민원 다발 지역

정읍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생활 속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악취물 주요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가축분뇨 및 폐기물 재활용업체, 돈사, 산업단지 등의 주요 악취물 배출사업장 50개소와 민원 다발 지역이다.

점검 내용은 ▲악취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및 가동주기 적정 여부 ▲악취배출원 및 사업장 관리 실태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악취방지법' '가축분뇨·이음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개선 권고, 조치 명령은 물론 사법처리까지 할 예정이다.

시는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무인 악취포집기 28대와 이동식 악취측정·포집차량 1대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읍시는 올해 상반기 5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4개소에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또 폐기물관리법 위반 8개소와 가축분뇨법 위반 13개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개소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정읍시 관계자가 지역 한 악취민원 발생 사업장에서 이동식 악취측정·포집차량을 이용, 악취원을 포집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위에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악취배출 사업장들은 악취방지시설의 상시 가동과 시설 개선 등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치유문화 활성화"

고창문화도시센터-열린사이버대 협약

고창문화도시센터가 열린사이버대학교와 치유산업 관련 사업의 발굴과 치유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열린사이버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치유' 관련 학과인 통합치유학과를 개설해 운영 중인 대학이다.

이번 협약에선 ▲치유문화·치유산업 관련 공동 학술연구 및 정보 공유 ▲치유문화도시사업 프로그램 운영의 사전, 사후 검사 및 치유문화진단 ▲치유문화산업의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홍보 및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고창문화도시센터 추천자에 대한 장학제도 운영 및 전문가 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됐다. 고창문화도시센터는 치유문화 전문기관과의 연



고창문화도시센터와 열린사이버대학교 관계자들이 고창의 치유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계로 고창군의 치유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 보다 가시적인 성과 및 프로그램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문식 고창문화도시센터장은 "협약을 통해 치

유문화도시로서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치유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을 모색해 대한민국 치유문화의 선봉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녹두 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접수

ha당 104만원...다음달 7일까지

정읍시가 녹두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오는 8월 7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직불금 지원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 증

가에 따른 가격하락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지원 대상 품목으로 '녹두'가 선정됐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으로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녹두를 재배해 2023년도에 직접 생산·판매한 기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농가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ha당 약 103만 824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직불금은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대상 농가가 누락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열대야 물렸거라~" 고창서 퓨전국악공연

다음달 1일 문화의전당 전통연희 단체 콘서트 '유희스카'

고창군이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국내 전통연희 단체가 펼쳐내는 국악공연을 마련했다.

고창군은 오는 8월1일 오후 7시30분 문화의전당에서 퓨전국악콘서트 '유희스카' 공연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유희스카는 한국 스키음악의 대부밴드로 불리는 '킹스틴루디스카'와 국내 전통연희 단체 '연희컴퍼니 유희'가 결성된 팀의 명칭이다.

지난 2018년 여우락페스티벌 공연을 시작으로 2022년 호주 한민족축제 초청공연, KBS 송가인

쇼 공연, 정구 앨범 발매 등 활발히 활동 중인 15명으로 구성된 빅밴드다.

자메이카 음악인 스카와 레게 음악을 한국적 감성으로 풀어내 누구에게나 거부감 없이 다다가 함께 즐기는 색다른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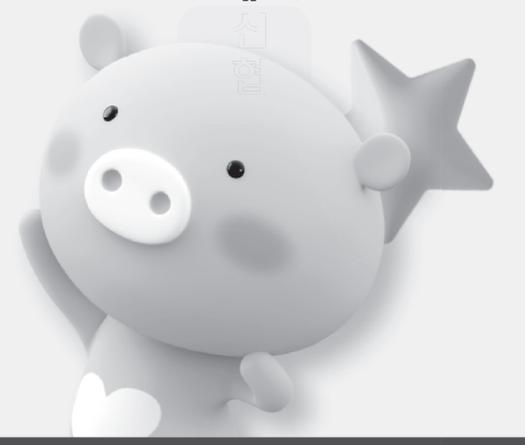
공연은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으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농악보존회,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한다. 관람은 무료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